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14, 2022 Vol. 834

뉴노멀 시대에 회복해야 할 “바울식 설교”

이동원 목사 2022 뉴노멀시대의 강해설교 클리닉 인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2022 뉴노멀시대의 강해설교 클리닉을 인도하고,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설교에 대해 소개했다.

미주 전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설교의 실제적 접근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자신의 설교를 설교학적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설교 클리닉 첫날 이동원 목사는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빠르게 소통하는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설교법으로 “바울식 설교”를 들었다. 그는 바울식 설교의 핵심으로 △강해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복음 전도적 설교를 꼽고, 오늘날 설교자에게 필요한 설교의 뼈대를 제시했다.

이동원 목사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처럼 뉴노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목회자들의 설교도 다양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위 세가지 설교의 중심 뼈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먼저 강해설교의 정의를 “성경 본문을 선택해 성실하게 해석하고, 주제의 발견과 전개를 통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진행된 2022 뉴노멀시대의 강해설교 클리닉 참석자 기념촬영 ©기독일보

적용하도록 이끄는 설교”로 내리고, 강해설교의 장점으로는 본문의 명료한 의미 해석과 설교자와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강해설교는 본문의 뜻과 역사적 배경을 잘 풀어낼 뿐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삶의 적용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설교의 서론과 본론, 설교가 지향하는 결론을 매듭지으며 통일성과 작품성을 갖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다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인 죄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그 죄의 궁극적인 해답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교에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한국 교회에 아직도 율법주의적 설교가 많은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설교자와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종이 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함을 가르쳐 준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복음전도적 설교를 소개할 때는 한국교회에서 복음 전도적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복음

전도적 설교가 수준 낮은 설교, 혹은 이벤트 때만 전하는 설교, 시대착오적 설교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음 전도적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음전도적 설교에는 인간 죄악의 실존과 딜레마를 잘 드러내야 하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해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존 맥아더 목사, 뉴섬 주지사에 “성경 왜곡한 낙태 캠페인” 비판



존 맥아더 목사
©Facebook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가 개인 뉴섬 주지사에게 성경을 왜곡 인용해 낙태를 옹호한 재선캠페인에 대해 회개하고 복음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지난 9월 29일 공개 서한을 통해 주지사에게 개인의 정

치적 목적으로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부끄러움 없이 잘못 이용한 것을 지적했다.

맥아더 목사는 개신 주지사에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만드신 아이들(시 139:13-16, 사 45:9-12)의 학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빌보드 광고를 당신이 후원했을 때 스스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미전역에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겨운 신성모독을 저질렀고 살인을 부추기는 이 캠페인의 사악함을 더욱 가중

시켰다”라고 했다.

맥아더 목사는 이어 “몰래의 신조(레 20:1-5)를 홍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만연, 노숙자 문제, 왜곡된 성 문제(동성애, 성전환 등)를 지적하면서 중대하고 영원한 위협에 처한 뉴섬 주지사의 영혼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뉴섬 주지사에게 “당신을 창조하신 기록하신 하나님의 면전, 곧 당신의 심판관이 되실 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통

치 기간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전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신의 완전한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며 “복음에 응답하고, 당신이 일생동안 추구해온 사악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CP는 뉴섬 주지사로부터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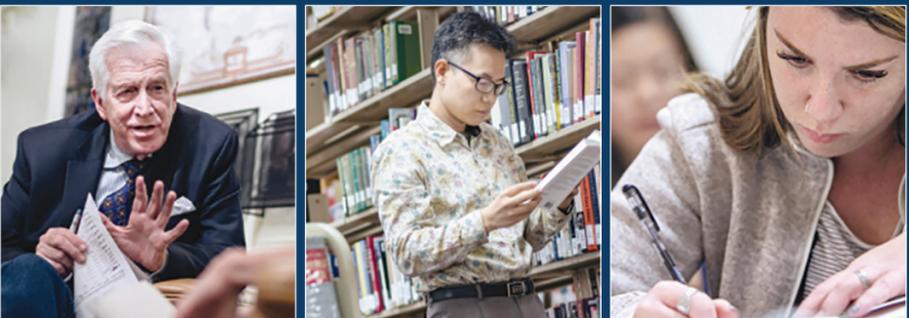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www.gs.edu/keb

“요한계시록, 환란 중에도 지키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

세리토스선교교회 정성욱 교수 초청 “밝고 행복한 종말론 세미나” 개최

덴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 세미나를 인도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바른 신학에 근거한 건강하고 균형잡힌 종말론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를 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교회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아니며, 환란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설명했다. 또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혹은 물리적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바로 잡고, 계시록의 영적 의미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재앙이지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고 대재앙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통합된 거대한 제국을 말한다”며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가운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끝내 승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



세리토스선교교회에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 세미나를 인도하는 정성욱 교수 ©기독교일보

보다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며 “계시록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이자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

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주님의 재림은 무섭거나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앙으로 삼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승리와 감격, 행복을 가져다 준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이 몰려오지만 환란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고 장희선 목사 자녀, 재미고신 총회에 2만5천달러 장학금 기탁



장학금을 부총회장 정인석 목사(우)가 총회장 한태일 목사(좌)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벧후3:18)를 주제로 LA 로템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개최된 제38회 재미고신총회(총회장 한태일 목사)는 2년 전 작고한 고 장희선 목사의 자녀들이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 장희선 목사는 생전 1남 1녀를 뒀는데, 자녀들이 지난해부터 재미고신 산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2만5천달러의 장학금을 마련해 총회에 전달하고 있다.

고 장 목사의 자녀들은 올해도 2만5천달러의 기금을 총회에 전달하고,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재미고신총회는 지난해 26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선발해 각 1천 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전달 할 방침이다.

한편 고 장희선 목사는 재미고신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서부노회 밝은빛교회를 담임하던 중 2021년 1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동욱 기자

설립 23주년 한마음제자교회 임직자 5명 세위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곽부환목사)는 지난 9일 설립 2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자 5명을 세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곽부환 목사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곽부환 목사의 인도로 김경식 장로의 대표기도 한선희 소프라노의 특별 찬양에 이어 예배소서 1:23절을 본문으로 이흥록 목사가 “교회의 영광과 섬김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은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귀한 임직자를 세웠다”며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실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섬겼느냐를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복음의 영광과 선교적 영광을 두셨다.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다. 한마음제자교회를 넘어 세상까지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

[1면 “뉴노멀 시대에 회복해야 할...” 이어]

그는 또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전도를 안하고 복음 전도 설교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한마음제자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임직자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고 전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곽부환 목사의 인도로 임직자 서약과 안수기도 약속례 임직공포 순으로 송덕호 장로, 김현석 집사, 김재홍 집사, 이경휘 권사, 박연희 권사가 각각 임직했다.

권면을 전한 남승우목사(ONE HOPE CHURCH)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대표)

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같은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한마음 공동체가 되라”고 말했다.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선교 단장)는 “말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날리는 임직자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전한 송덕호 장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와 하나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김동욱 기자

설교가 목회적 설교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 성장과 성숙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목사는 강해설교 클리닉을 마치며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양육,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선포에 있음을 당부하면서, 우리 설교의 목표와 초점을 놓치지 말자고 조언했다.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다음 세대가 부모세대와 더불어 성장하는 발판 마련할 것”



제38회 재미고신총회에서 신임총회장으로 선출된 한태일 목사 ©기독일보

지난 4일 LA 로명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개최된 제38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신임총회장으로 한태일 목사(가든교회, 65세)가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한태일牧사는 본지와외의 인터

뷰에서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셨는데,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재미고신총회 산하 영어권 교회를 비롯해 중·고등부, 대학부 다음 세대가 부모세대와 더불어 성장하

[인터뷰] 재미고신 신임총회장 한태일 목사

는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 목사는 재미고신총회의 자랑으로 개혁주의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순교자적 신앙을 들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신앙유산 계승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특별히 내년 7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SFC 전국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SFC 전국대회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개최가 불가해 7년 만에 열리는 만큼, 재미고신 산하 차세대 부흥을 위한 대형집회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 목사는 재미고신총회 산하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우리의 순수 개혁주의 신앙만 빼놓고, 바꿀 것은 좀 바꾸면 좋겠다”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과 시각의 방향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

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목회자들을 향해 “이민 목회가 너무도 어렵고 열악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했으며, 산하 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교회 중심·성경 중심 신앙을 붙든다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태일 목사는 인하공대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공학석사를 마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마쳤으며, 웨스터민스터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1994년 한 사람과 자택에서 가든교회를 개척해 28년 동안 섬기고 있으며 2024년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브루더호프 이야기’ 북투어 콘서트

오는 17일(월) 오전 10시
미주북음방송



92801)에서 열린다.

박성훈 작가는 뉴욕의 허드슨강가 메이

플릿지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어린이전용 가구 제작과 출판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16년째 살고 있다.

박 작가는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브루더호프 이야기’에서 문화와 풍습이 다른 여러 나라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 함께 일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 곳 형제자매들의 실제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브루더호프(Bruderhof)의 창시자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비참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생명, 사랑,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1920년 독일의 자네츠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에 3천여 명이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에 기초한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

박성훈 작가는 “이번 북투어콘서트를 통해 15년간의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오늘날의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초대교회적인 크리스천 공동체의 모습을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리얼 다큐로 전함으로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반향하며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 714-484-1190

김동욱 기자

주님의교회 박상목 목사, 41년 목회 여정 마무리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명예은퇴식 가져

가주주님의교회 박상목 목사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명예은퇴식을 갖는다.

41년간의 목회사역을 마무리하는 박 목사는 제26대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회장(2003-2004년), 제29대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2019-2021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은퇴식 장소는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13701 Hillsborough Dr. La Mirada, CA 90630)이다.

문의 714)612-5958

김동욱 기자



박상목 목사

WPC 미주서부노회 제97회 정기노회 개최

WPC 미주서부노회(노회장 김삼기 목사) 제97회 정기노회가 지난 3일 사랑장로교회(담임 김삼기 목사)에서 열렸다.

부노회장 나정기 목사(이레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개회예배는 서기 인형식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회계 김효성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노회장 김삼기 목사가 ‘목회사역원리’(롬 12:10-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삼기 목사는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역자들로, 세계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세계

를 향해 세계를 내다보는 목회를 하자”며 “노회에서 힘을 얻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노회가 되자”고 전했다.

노회장 김삼기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에서는 김영재 목사 가입 신청에 관한 건이 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허락됐다. 이어 회계 보고와 증경총회장 나정기 목사의 한국 합동측 총회참석 보고 및 WMS(이사장 나정기 목사) 소식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노회에서는 직전노회장 정갑식 목사(해돋는교회)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김동욱 기자



WPC미주서부노회 제97회 정기노회 기념촬영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출인원 Cash
\$20,000

2022년 10월 24일(월)
10:30 AM(접수) 12:00 PM(샷건)
Los Coyote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참가비: \$150 (그린피 및 점심, 저녁 만찬 포함)
경 품: 출인원 Cash \$20,000, 한국왕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 준비

대회장: 김영대 목사(연복회 이사장, OC 목사 증경회장)
부대회장: 황선철(CBMC, 증경 총회장), 유중배(Dimax Express 대표) 명예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명예공동대회장: 신영세, 한창훈, 엄재선, 전 홍, 김도영, 김영수, 차원도, 이소연, 신동직
총괄준비위원장: 민 김 집행위원장: 이원표 집행부위원장: 윤강혁

후원인문사: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스매거진]사람과사회, 미주북음방송,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일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윌리, 크리스천헤럴드, CTS America, CHTV
후 원: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H한인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세계기독교여버니기도회, CBMC, OCH한인회
협 찬: 센터메디칼그룹, 플러튼약국, 한솔보험, Dimax, 오렌지호스피스, 제임스윌드와이드, 칼라럼, 김스피아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range County Korean Christians Association

www.ockca.org / info@ockca.org /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신 용 (562.399.2022) 이사장: 윤우경 (213.500.5449)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터뷰] 한동대 최도성 총장

지난달 22부터 지난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최도성 한동대 총장이 뉴욕과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엘에이, 달라스 등지를 순회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의 비상(飛上)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최 총장은 이번 방미 일정 동안 킹스 칼리지, 캘리포니아 뱀티스트 유니버시티와 MOU를 맺고 학술 및 학생을 교류하기로 했으며 남가주 지역 명문 기독교 대학인 바이올라 대학과 협력을 논의했다. 또 텍사스 달라스지역 크리스천 보딩스쿨인 브룩 힐 스쿨을 찾아 미국 학생들의 한동대 입학 관련 된 사항을 논의했다.

최 총장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동대학교 동문들과 만남을 갖고 추후 한동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미주 각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동대학교 동문들은 글로벌 크리스천 대학을 향해 전진하는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며 다각도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 총장은 뉴저지 온누리교회(담임 마크 최 목사), 산호세 온누리교회(담임 조명제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 박성호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 등 미주한인교회를 방문해 글로벌 대학을 향해 전진하는 한동대의 비전과 발전상 소개하고, 재미동포 자녀들의 입학과정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1995년 개교한 한동대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개교 이래 무감독 양심 시험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전공·무학과 입학은 한동대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모든 학생이 전공 선택 없이 입학해 1년 동안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전공을 선택한다. 학생들은 졸업까지 적어도 2개의 복수전공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융합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장려하는 등 기독교 대학으로서 영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체 4천 200여명의 재학생 가운데 250여 명이 60여 개 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로, 재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제하면 글로벌 시각을 갖추도록 했다.

최근 LA를 방문한 최도성 총장으로부터 방미 성과와 함께 한동대의 비전, 계획에 대해 들어왔다. 최도성 총장은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동대 교수(국제화부총장), 가천대 교수(국제부총장)를 거쳐 지난 2월 한동대 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이다.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과 성과는 무엇이



한동대 최도성 총장 ©기독교일보

킹스칼리지 · 캘리포니아 뱀티스트 유니버시티와 MOU 체결 미주 한동대학교 동문들과 협력 모델 구축, 한인교회 후원 확보 미주한인 차세대 자녀들 한동대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세울 것

있습니까?

“미주 지역에 저희 한동대 동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 동부와 서부를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문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문들을 보면서 매우 뿌듯했고, 자랑스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한동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그동안 학교와 유대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면이 없지 않았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한동대의 비전을 나누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맺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총장 취임 후 크리스천 대학, 글로벌 대학의 비전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취임 직후 한동대는 “부흥”(Revival)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팎으로 위기의 징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에 따른 학년 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 급격한 기술 발전 등 이런 위기를 타파하고 한동대만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크리스천 대학과 글로벌대학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의 비전과 크리스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세속화되고 있는데 한동대는 세속화되지 않을 겁니다. 한동대는 전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크리스천 대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장 취임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의 공동체 성경읽기를 장려했습니다. 한동에서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최소 두 번 통독할 수 있게 했고, 수요채플, 주일예배, 새벽기도 등 캠퍼스에는 예배와 기도

가 끊임 없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동대학의 졸업생들은 세계 많은 나라에 나가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전문 지식을 들고 그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2040년까지 한동대 재학생의 50%를 해외에서 온 학생으로 충원하고, 한동대 졸업생 50%의 해외 진출, 교수진의 50%를 외국인 교수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아본 사람들이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의 교수님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방미 기간 미국 대학과 MOU도 체결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대학의 비전을 실천하려면 한동대 혼자서는 안됩니다. 다른 대학과 협력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과 협력관계를 새롭게 맺고 지금 관계를 맺은 대학과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MOU는 학생 교환, 교수 교환, 지식 교환을 포함합니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동대 학생들이 미국

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국의 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한동대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총 60개 국 198개 해외 우수 대학과 학생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라도 한동대에서는 전체 과목의 30%를 영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영학, 정보기술, 국제법은 영어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구체적으로 맺고 싶은 결실은 무엇입니까?

“한동대만의 차별화를 위한 로드맵에는 더 나은 학사 교육 과정, 인성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발맞춰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넘어서 학생들이 배움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식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사유한 결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고 무전공 무학과로 학생들 선발하는 등 교육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제는 더욱 선진화된 교육 과정과 학사 과정, 인성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돈을 벌 뿐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환경을 살리는 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한동대는 태어난 지 27년 된 아직 소년입니다. 나이 어린 학교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학교임을 많이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한동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주에 있는 한인 자녀들을 한동대로 보내주시십시오. 미국의 차세대 자녀들이 한동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동역자들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졌던 모세가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족의 구원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갈대상자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계를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업,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2023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금: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2년 12월 30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3년 1월 16일(월)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84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총 \$104,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2,748,200 입니다.

[브리짓지교회를 소개합니다①] 늘새론교회



늘새론교회 강은덕 목사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남가주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늘새론교회는 2012년에 개척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새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은덕 목사입니다.

한국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하다가 2003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 부목사로 크고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노스리지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던 중 개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가든 그로브에서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척하면 2-3년 안에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시간이 갈 수록 사라져 버렸고 오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올해가 개척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척교회 사이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있던 성도들도 이리

저리 다 흩어지고 9명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CTS 방송 작가님을 통하여 워브릿지컨퍼런스를 소개 받고 아내와 함께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하였습니다.

1988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시작하여 34년 동안 한 주일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지만 쉽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 가운데 참된 쉼과 회복을 뜨겁게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태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던 친구 목사님 가정이 안식년으로 오셔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젊으실 때 연극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전도사님과 항상 교회에 힘든 일을 도맡아 수고하시는 안수집사님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어려워 매주일 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몇 년 전부터 필리핀과 멕시코에 작으나마 후원하고 있고, 세계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버티자 버티는 것이 상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니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교회들끼리 함께 동역하며 동행할 때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새론교회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 항상 예배하는 하늘의 시온 공동체가 된다.
- 2. 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 3. 전파하는 증인**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한다.
- 4. 성숙해가는 성도**
각자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장

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

■ 늘새론교회

주일예배 : 오전 9:30
 청년부예배 : 오전 9:30
 주소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전화 : 714-453-8829
 이메일 : dmsejrrkd@hanmail.net

[위 브릿지 간증] 한 은퇴 권사님의 두 렫돈

위 브릿지 사역은 팬데믹 중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이 너무도 큰 안타까움을 느껴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막연하게 고민하던 중에 마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님과 미주 CBS 대표 한기형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포맷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상을 마쳤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와 결연을 맺을 교회들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교회를 3년간 매달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많은 교회들이 위 브릿지 사역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더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지 못해 미안해 하는 모습들에 남가주 한인교회는 아직 온정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1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참가했던 목사님이 큰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에 더욱 큰 감사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결연교회를 더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남가주 교회는 결국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위 브릿지 컨퍼



위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함께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

런스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신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위 브릿지 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참고로 이 목사님은 위 브릿지 사역에 동참해 한 교회를 지원 하기로 이미 약속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한 권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고 그 권사님께서 한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더는 일을 할수가 없었고 생활도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건강도 악화되어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소셜연금 400불을 모아 남편의 장례식을 준비하려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6천불을 현금으로 가져와 현금하면서 작은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써달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1년만 돕겠다고 하셨던 권사님은 목사님의 주일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3년간 내가 교회 하나를 맡아서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돈은 사르벳 과부의 남은 음식과도 같고 과부의 두 렫돈 같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 해석해야할까요. 도무지 가슴이 뛰고 눈물이나서 전답수가 없었습니다. 이런분들이 기도하며 위 브릿지 목사님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저 앞을수 있었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미주 기독일보 이인규 대표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글루콘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디즈니·구글, 美 대학생 낙태 홍보 영화 제작 지원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협력 관계에 있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일부 대기업들이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학생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산하의 아넬버그 스쿨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학부는 트윗을 통해 ‘생식 권리 촉진(Reproductive Rights Accelerator)’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세 명의 영화전공 졸업생 학생들을 선발하여, 낙태 문제를 다룬 원고 개발 및 영화 제작에 보조금 2만5천 달러를 지원한다.

당시 아넬버그 스쿨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보조금은 올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의 헌법 권리를 철회한 데 따른 대응임을 밝혔다.

생식 건강 및 정치적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성 평등 옹호 비영리 기관인 워민 무빙 밀리언즈(Women Moving Millions)가 자금을 대고 있다. 이 단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약정한 34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넬버그 옹호 이니셔티브(Annenberg Inclusion Initiative) 설립자인 스테이시 스미스는 성명에서 “낙태 권리의 축소로 인해 대중에게 낙태와 소외된 지역사회를 보호할 법적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화 확장, 실질적 태도 및 정책 변화를 만들 도구로 스토리텔링을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메릴 스트립, 에바 롱고리아, 케리 위싱턴 등 일부 할리우드 여배우들을 비롯해, 미국 최대의 낙태 제공 업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구글, NBC 유니버설, 소니 픽처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이라 불리우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특히 월트 디즈니 컴퍼니(WTC)는 직원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여행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미국 내 60개 기업 중 한 곳이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파라체치 단체 ‘포커스 온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의 생명 문제 분석가 니콜 헛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낙태 정책을 둘러싼 문화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낙태 운동가들이 낙태를 둘러싼 서사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헛트는 “생명 지지 운동은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맞서야 한다”면서 선례로 미국 배우이자 기독교 활동가인 커크 캐머런이 কেন트릭 형제와 제작한 영화 ‘라이프마크(Lifemark)’를 소개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젊은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냈다.

헛트는 “생명 옹호 운동이 스토리텔링을 우선순위에 둬으로써, 미국에서 낙태에 관한 법을 바꾸는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며 “태아를 생명과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 뉴스 매체인 캠퍼스 리폼(Campus Reform)은 USC 재학생 모건 패리어와의 인터뷰를 최근 소개했다.

모건 패리어는 “이 보조금이 낙태로 인해 삶이 더 편해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또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생명을 선택하고 만족한 여성, 낙태 생존자들의 이야기 또는 낙태 찬성론에 맞지 않는 다른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 자금을 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美 하원의원 “대북 정책, 핵·인권 함께 다뤄야”

워싱턴D.C.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관련 메시지 전해

미 하원 중진의원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톰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6일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스탠퍼드대학이 워싱턴D.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더욱 심각해진 북한의 인권 상황과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19 규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악화시켰고, 북한



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스탠퍼드대학이 워싱턴에서 공동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맨 오른쪽),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운데). ©VOA 보도화면 캡처

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김정

은 정권과 모든 관여에 인권을 통합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국무부, 北에 “한국인 6명 억류, 조속 해결해야”



왼쪽부터 김정욱(58)·김국기(68)·최준길(63) 선교사. 이들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다.

미국의소리의 서면 질의에 강경한 입장 표명

미 국무부가 일본인 납북자와 더불어 한국인 6명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 해결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이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구금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동맹, 파트너들과 수용소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북한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미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 한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다만 지난 4월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중 일부는 길게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언급했다.

VOA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해외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수 차례 이끌어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직접 방북해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의 미국 송환을 이뤄냈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북한에 17개월 억류돼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를, 지난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를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VOA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국민 억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목사, 한국에 정착한 후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펼치던 김원호 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을 포함한 6명이 억류 중이다. 강혜진 기자

“엘비스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고 매일 성경 읽었다”

의붓형제 스탠리, 회고록 발표

미국의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의붓형제가 “그는 예수님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빌리 스탠리는 최근 ‘엘비스의 신앙: 형제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새로운 회고록을 발표했다.

스탠리는 CP와의 영상인터뷰에서 “엘비스는 기독교인이었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본다. 그러나 그는 콘서트에서 항상 공연 중간에 두 개의 가스펠송을 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기독교인임을 알리기 위해 무대를 플랫폼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스탠리는 “엘비스는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라며 “그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소지했다”라고 했다.

스탠리의 어머니와 엘비스의 아버지 베르논은 군복무를 하며 독일에서 해외 주둔하는 동안 만났다고 한다.

스탠리는 “엘비스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가 가장 즐겼던 역할 중 하나는 형이었다”라며 “그는 외아들이었고, 그는 항상 형제를 갖고 싶어했고, 우리는 그에게 다시 아이가 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다.

당시 엘비스는 25살이었고, 그의 의붓형제들인 스탠리는 7세 릭은 6세, 데이빗은 4세였다고 한다.

스탠리는 “그는 우리를 가족으로 환영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 전에 그는 기도를 했다”라고 회상하며 “로큰롤의 제왕인



성경박물관에 전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성경. ©The Christian Post/Samuel Smith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나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엘비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과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소년을 제 삶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스탠리는 “그건 아마도 살면서 들은 첫 번째 기도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성경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에) 밑줄을 그었고 메모를 했다. 그는 성경을 끝까지 여러 번 읽었고, 그가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엘비스가 형제들에게 성경을 읽어 줄 때 항상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 역할을 해주곤 했다”면서 “주일학교를 결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스탠리는 프레슬리의 신앙이 그에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 관한 책을 써야 한다고 느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린

도후서 9장에 나오는 구절 “주님은 관대하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신다”처럼 프레슬리의 관대함과 동기를 강조한다.

스탠리는 “그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다.

스탠리는 프레슬리가 노숙자에게 돈이 가득 찬 지갑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울기 시작했고 프레슬리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대답했다.

스탠리는 “엘비스는 그 누구와도 닮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엘비스가 가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에 대해 듣는 이유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라며 “사람들은 그를 로큰롤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가스펠 음악으로 3번의 그래미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스탠리는 “천국은 프레슬리의 보상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레슬리는 1977년 4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최근 프레슬리의 삶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스탠리는 영화가 엘비스의 실재를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내가 자라면서 본 엘비스가 아니다. 영화에서 그가 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농담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았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건 엘비스와 함께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엘비스의 정의를 실제로 구현한 영화를 보고 싶다. 그는 그들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가/을/맞/이 기획전

셀리온과 유한건강생활의 부스터 세트 무료 선물 행사

더 높은 복합효과를 위해 함께하면 더 좋은 세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탈모 예방과 발모 촉진은 모발 성장 인자가 정답입니다



헤어성장인자 함유 헤어 셀 스피클 앰플 구입시

+



디톡스화잉 + 토닉 + 헤어 셀 샴푸 + 컨디셔너 4종 플 세트

주름없는 탱탱한 피부로 가꾸는 E2F4



특허 등록된 콜라겐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함유 E2F4 앰플 구입시



E2F4 세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유정란 배반엽 애그 스템 셀 세트



BP 앰플 구입시

+



BP 세럼

젊고 활기찬 건강관리는 믿을 수 있는 유한 건강생활 제품으로



유한양행 전용농장만의 최상급 녹용과 홍삼으로만 만든 전 녹용홍삼 스틱 구입시

+

전홍삼 스틱

FREE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건강관리



에스트리션 백수오 더블 구입시

FREE

관절과 피부 건강관리 백수오 듀얼 콜라겐



피로한 눈, 건조한 눈, 노화된 눈 건강을 위한 복합세트

간이 좋아야 눈도 건강해진다



눈 건강 루테인 2개 구입시

+



간 건강 밀크시슬 2개

허리와 근육은 물론 뼈 건강까지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코어 프로틴 스틱 2개 구입시

+



어골 칼슘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증상 복합관리 에스트리션



에스트리션 백수오 퓨어

+

여성들 요로와 질 건강에 이노플로라 크린베리

FREE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L.A. 점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 738-1188

부에나팍점 소스몰 1층 (714) 523-8100

얼바인점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 800-8788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선교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영성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 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성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도(마침막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 대 학생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903-0403
E-mail: chdailya@gmail.com

26개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 “예수에 대해 긍정적”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다수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예수가 세상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 바나(Barna)가 발표한 최근 연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13-17세 청소년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국적은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필리핀,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6개국이다.

십대의 약 절반은 예수는 “사랑(49%)”이며 “희망을 주는 사람(46%)”이라 답했으며, 5명 중 2명(43%)은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 3분의 1 이상은 “신뢰할 만한 분(39%)”이며 “관대하시다(37%)”고 답했다.

응답자의 47%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는다”고 했으며, 3명 중 1명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믿음은 신앙을 가진 십대들 사이에서 15%로 떨어져, 무신앙인 십대들(13%)과 거의 비슷했다.

예수에 대한 이해 중 가장 좋은 설명에 대해 묻자, 청소년의 31%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꼽았다. 또 십대의

39%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의 성격 특성으로 “용서를 베푸신다”를 가장 많이 택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묻자 청소년의 36%는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십대 중 6%만이 자신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며, 10명 중 1명만이 “그분은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답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4명 중 1명(24%)만이 “예수가 오늘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으며, 23%만이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 에리조나크리스천대학 문화연구센터의 조지 바나 연구소장은 “십대들이 예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은 드물다. 예수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은 그분은 신뢰할 만하고, 관대하며, 지혜롭다는 것”이라며 “예수가 오늘날 개인적이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뒤쳐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바나는 “세대 전반에 걸쳐, 십대들은 예수의 삶과 성품에 대한 원칙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예수의 성육신, 부활, 오늘날과의 상관성에 대한 가르침의 이해나 믿음은 거의 없다”며 “이는 십대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계에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인도한 이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뉴저지 대형교회, 세계 식수 위생 후원 위한 카페 개설



미국 뉴저지주의 파시파니 캠퍼스에 위치한 리퀴드 처치(Liquid Church)의 비영리 목적의 '클린 워터 카페'가 지난 3일 리본 커팅식을 가졌다. ©리퀴드 처치 제공

리퀴드 교회 “수익금 전액 아프리카·중미 식수에 기부”

미국 뉴저지의 한 대형 교회가 해외 지역 사회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자선 사업을 위한 카페를 개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저지주 파시파니 트로이 힐스에 있는 리퀴드 교회(Liquid Church)는 지난달 29일 제임스 R. 바베리오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워터 카페(Clean Water Cafe)의 오픈식을 가졌다.

이 카페는 자폐증이나 다중증후군과 같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아프리카와 중미 지역 사회에 식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리본 커팅식을 가진 뒤, 방문객들에게 무료 커피 및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맞춤형 포도 부스를 전시했다.

리퀴드 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브룩 스템퍼트는 “리퀴드 교회에서 깨끗한 물은 전 지구적인 대의이며, 카페를 통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클린워터 카페에서 우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고객과 후원자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즐기면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카페 오픈은 2020년 초에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회는 오픈을 연기해왔다.

팀 루카스 리퀴드 교회 담임 목사는 2020년 CP와의 인터뷰에서 “카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 사역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학부 모를 위한 지원 그룹과 매년 ‘빛나는 밤(Night to Shine)’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할 친구를 지정해 교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돕는 버디(Buddy)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루카스 목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특별한 필요에 관한 한 (세속) 문화보다 30년 뒤쳐져 있다. 열정은 있지만 인력과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리퀴드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앞장서서 ‘우리는 포용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 자원봉사자가 20~30대”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기독교인들이 ‘히잡 반대’ 이란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감옥에서 의문사한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촉발됐다. 기독교인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여성의 권리와 이란의 억압 종식을 위한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UN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런던에 소재한 인권감시단체인 ‘아티클18’(Article 18)의 옹호국장인 만수르 보르지(Mansour Borji)를 인터뷰하고 아미니의 죽음에 왜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란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시위의 규모와 이란 정부와 정권에 대한 불만의 공개적인 표현에 놀랐는가?

“솔직히 말해서, 아니다. 약 10년마다 이란은 국가적 시위를 일으켰다. 이란의 거리와 대학에서 사람들을 시위로 이끈 분노는 이같은 봉기의 빈도를 증가시켰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일어나 의무 착용인 히잡을 벗고 불태우고 있다. 이번 시위는 ‘여성, 생명, 자유’라는 하나의 통일된 슬로건 아래 모든 인종, 문화, 종교 집단의 이란인들을 통합하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의 절대적인 시민 불복종이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경찰 판에 썼을 때의 반응에 실망했는가?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도다. 그의 집권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개혁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독교인들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면 위험이 증가하는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초대교회가 한 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이며, 영적, 육체적, 정치적, 사회적 억압의 속박을 볼 때 교회는 이 일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며 뒤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불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분수령의 순간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른가?(시위가) 실제로 이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은 ‘이제 끝이 아니다. 끝의 시작도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시작의 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거의 이르렀고 충분한 피를 흘렸으며 끝이 있기를 바란다. 정권은 국내에서 정당성을 잃었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과 같은 지역 전역의 다른 많은 국가를 괴롭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핵 야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협한다. 이제 세계가 그 지역에서 더 큰 평화를 볼 때라고 생각한다.”

-영국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이란 내 많은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권위자들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이란 정부에 대응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영국에는 여성 총리가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국제관계에서 매우 전략적인 이번 해방 운동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정책에서 말을 넘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운동을 진정으로 지지하고, 여기에서 매우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입증되도록 해야 할 때다. 독재자들에게 안주할 때가 아니다.”

김유진 기자

“해외 선교에서 현지 영적 리더 세우는 것 중요”



할 커닝햄(Hal Cunningham) IMB 글로벌 부회장이 주제연설을 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브 영상 캡처

4일 시작된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30주년 기념 미래 선교전략 컨퍼런스’는 5일까지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TIM 대표) 기쁨홀에서 진행됐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할 커닝햄(Hal Cunningham) 미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글로벌 부회장이 주제연설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 손질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며 음식, 식수, 거주공간, 의복 등 ‘요구(Needs)가 가장 필요한 곳은 시리아였다. 난민촌에 방문해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며 영적으로 개방시키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다”며 “오랫동안 선교사 중심으로 해오던 많은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에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지 리더들이 말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선교사보다 더 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들에게

서 매일 약 15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항상 잊지 말고 꼭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커닝햄 부회장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난민·의료 사역 등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선교 현지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건강한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고 좋은 리더를 세워야 한다. 많은 선교단체는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주제연설에 이은 5세션은 ‘TIM 다음 30주년 미래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총회 목사(TIM 본부장)가 엄주연 교수(GMTC), 마크 최 목사(TIMA 본부장,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김창욱 전도사(전 TIM 본부장), 이은준 선교사(RC/TIM), 한영훈 전도사(RC/TIM)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승연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환어정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KF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7:30 영어점년부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9:30 토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2331 W. Orangehope Ave., Fullerton, CA 92833
15014 Rivalo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F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환어정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점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연구회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자예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00(화-금) 목요일 밤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ho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3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SEED INTERNATIONAL MISSION을 소개하면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북미주 가운데 한인 교회와 목사들이 연합하여 열정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선교단체 간의 화합과 교제를 위해 모이는 선교 연합 모임에는 늘 함께하려고 하는 편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 씨드 선교회 소속 목사와 선교사들이 여러분 있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선교지역과 활동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씨드 선교회는 지난 2000년도에 당시 버지니아 중앙장로교회 담임이셨던 고 이원상 목사(2016년 소천)가 중심이 되어 미주를 중심으로 세워진 한인 선교 단체였다.

씨드 선교회는 'Prayer is Mission'이란 구호를 사용한다. 2013년 버지니아에서 Prassion이란 이름하에 기도센터를 세웠다. Prayer + Mission의 합성어로 씨드 선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힘쓰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씨드 선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필자는 'ICMS'(그리스도를 닮은 선교사 학교)를 매우 기대한다. 이 학교는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데 파송 받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시행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도의 삶이다. 예수님의 정직과 겸손을 모든 선교사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 강조하며 지도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는 사역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시는 사역'을 집중하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를 본받는 선교를 제시한다. 모든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사역에 헌신한다. 그렇다. 이런 좋은 취지의 선교단체가 미주 한인 이민 사역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필자는 씨드 선교회 소속의 파송 선교사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선교사들이란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렇다. 씨드 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의 삶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임을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 시키신다고 확신한다.

예전에 이원상 목사님이 선교 대회 때 말씀하시면서 "우리 씨드 선교회는 성품 선교와 무릎 선교라는 두 가지 확신을 선교회의 비전목표로 여기고 SEED의 머리글자들을 따서 4개의 기둥을 세워 갑니다."라 하셨다.

S는 'Serving'(지역교회 섬기기), E는 'Equipping'(선교사 키우기), E는 'Evangelizing'(복음을 온 세상에) 그리고 D는 'Discipling'(현지 지도자 양성)으로 이 사역비전이 씨드 선교회의 4개의 기둥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씨드 선교회는 126가정의 선교사 파송으로 세계 30여 개국으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각 선교사마다 그 나라와 종족들 속에서 모범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현상에 맞추어 창의적 선교의 모델을 찾고 애쓰는 모습들을 본다.

씨드 선교회의 국제 대표로 박신욱 목사가 있다. 그 성품을 아는 이들은 참 어울리는 리더십이라 칭송한다. 필자도 훌륭한 성품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들과 스텝 사역자들이 아름답게 사역하는 씨드 선교회를 위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근하게 후배들을 격려하시던 이원상 목사님이 많이 그리워진다.

천재적인 이야기꾼 체호프의 단편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은행가가 15년전 다소 황당한 내기 상황을 회상하며 후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은행가가 초청한 파티에서 사형제도와 종신형 중 어느 것이 인간적인 프로그램인가를 토론합니다. 은행가는 사형제도가 좋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사형과 종신형 모두 부도덕한 제도라고 비판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종신형을 선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 번뿐인 생명은 소중한 것으로 죽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가는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에게 황당한 내기를 제안합니다. 처음에 은행가는 변호사가 감옥에 5년 동안 살지 못한다는 데에 200만 루블을 겁니다. 그 당시 200만 루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패기로 뜨겁게 타오르던 변호사는 5년이 아니라, 15년을 감옥에서 살 수 있다면 은행가가 제안한 내기를 받아들입니다.

은행가는 자기가 일시적으로 너무 기분을 냈던 것이 부끄러워 젊은 변호사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유의지로 감힌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가고. 하지만 변호사의 패기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은행가의 만용 그리고 젊은 변호사의 물욕과 오기로 황당한 내기가 성사 되었습니다.

내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편지도 신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기는 쓸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갇힌 곳에 작은 창을 하나 내 주기는 하는데, 목소리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은 1870년 11월 14일부터 1885년 11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렇게 성사된 내기는 실행되었습니다. 25세의 젊은 변호사는 15년 동안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생활하는 독방은 바깥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쪽지를 작은 창문이 달려 있는데 쪽지를 주고받고 이것은 변호사가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초기에 변호사는 외로움과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안톤 체호프의 “내기”

런데 변호사가 남긴 메모를 봅니다. 젊은 변호사는 계약만료 직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탈출한 것입니다.

이상은 시대와 언어, 국경을 넘어 사랑 받는 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Anton Pavlovich Chekhov)의 단편소설 <내기>의 줄거리입니다. 체호프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로 독자들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체호프는 가난한 잡화상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머 잡지나 신문에 단편과 잡문을 기고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스물네 살에 의사 면허를 받아 의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도 계속했습니다. 체호프는 '귀여운 여인' 등 400여 편의 단편과 여러 장편을 썼습니다. 체호프 작품에 의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벚꽃 동산'이라는 작품을 제외하곤 거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물로 의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진료를 계속했던 체호프는 종종 "의학공부와 수련은 나의 문학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호프는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더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의학은 나의 합법적 아내(lawful wife)이고, 문학은 나의 정부(情婦, mistress)다. 한쪽에 진저리가 나면 다른 쪽과 밤을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사 문학가 체호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의사 작가 체호프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등장인물 묘사가 섬세했습니다.

<내기>는 허망한 결말로 유명한 체호프 소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설 <내기>가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망치는 만용과 탐욕이 보입니다. 은행가의 만용과 젊은 변호사의 탐욕이 헛된 내기의 출발입니다. 만용과 탐욕으로 지금도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실수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늙은 은행가도 젊은 변호사도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삶을 망치는 패자입니다. 셋째로 허망한 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간단하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부질없는 고집으로 인생이 처참하게 망합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가정천국 영적 공동체(1)

시편 128: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3 네 집 내실에 있는...(중략)...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앙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사라와 함께 신앙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요 남편이었지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우러러 기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을 영적으로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처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기에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믿음이 다 하나같이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회개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각 하는 것이 저절로 같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 믿음이지 자기 형편에 부담이 되도록 지나치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와 관계가 신앙 인격이라는 바탕위에서 피차가 신뢰하여 깊어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 상태일 때는 자기 형편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유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감사의 조건을 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준을 그러한 것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1. 1절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敬(공경할 경) 畏(두려워 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진심으로 섬기고파 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드리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고 지극 정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에서 도는 道(길도)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실천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하면 장수와 부와 존귀함을 받는 것과 아들을 많이 얻는것(壽.富.貴.多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이중적 복된 개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몫이 되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꼭두새벽부터 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내가 했지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네 수고한 결과를 가로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

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쌓아 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죄인이 하고 그 죄인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죽자 사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면서 회개한 일도 없고, 거둬나지도 않고, 성령도 못 받은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노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알뜰히 모아 쌓아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어떤 복이 시작되느냐 네 손이 수고한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네 하는 일이 형통 할 것 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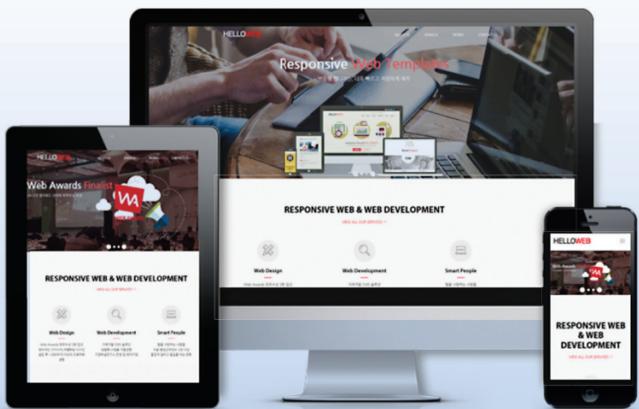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 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콘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절망이란 기대를 저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냉소주의입니다. 무엇이든 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냉소주의입니다. 우리는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큰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경험하고, 문제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문제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인정했습니다(마 15:22).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부인하거나 감춤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둘째, 거룩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총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 11:6).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상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계속됩니다.

셋째,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지혜는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태도는 열린 마음입니다. 축복의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이 열려 있지 않으면 축복의 비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큰 은혜는 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은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다음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개가 주인인 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기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마 15:27).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마 15:28). 예수님은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가나안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넷째,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거듭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십니다.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가를 보기 원하시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물러섭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의심합니다. 성경

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받기 전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번 더” 시도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문을 열 때,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하나씩 시도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열쇠꾸러미의 마지막 열쇠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적을 기대하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초심과 함께 뒷심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뒷심이 약해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뒷심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를 갖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참석하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모릅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갖게 되는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세미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구봉주 칼럼

인복(人福)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아마 연령대 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워니워니 해도 마니, 돈, 물질에 관한 복일 것이고, 40-50대 기성 세대들은 워니워니해도 성공, 성취일 것입니다. 60대 이상은 건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목상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재능과 능력 뿐이 아니라, 좋은 관계와 만남

을 통해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과 및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짝박한 기도부탁이었습니다. 카톡을 보자마자 “혹시, 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서, 부리나케 카톡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학원에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 올 연말에 모두 떠나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니, 어떤 불화나 갈등이 있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잘 지내온 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게 되셨는데, 친구의 입장에서 좋은 분들이 떠나니, “다음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오실

까?” 내심 불안했던 것입니다. 회사든 사회단체든 교회든 좋은 분들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친구를 위로하였습니다.

천국과 영생 구원과 같은 영적인 복들 외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은 인복, 사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전환점을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업자,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제자, 좋은 협력자, 좋은 직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제 친구와 저와의 신앙적인 우정 관계처럼, 신앙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영적으로 귀감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인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이에게 인복이 되어주고, 우리의 인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복이 많으십니까?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인복이 많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것처럼, 인복이 많으신 분들이신 줄 압니다. 언제나 “나는 참 인복이 많다”는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진유철 칼럼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믿음은 다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해 맹렬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한 역전승을 이루어 성경에 “바-디-매-오”라는 이름을 남긴 존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디매오의 “반응”은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맹인 거지로 그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반응은 믿음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1페니 전략(Even a Penny Technique)’이 있습니다. 암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모금할 때는 32% 참여, 평균 21달러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1페니라도 좋습디다.’라고 변화를 주었더니 58%가 동참하고 평균 32.3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요청하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10분만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고 도와주다가 1시간도 도와주곤 합니다. ‘한 두 줄만 써주세요.’ 이 말로 시작해서 책 한 권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반응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반응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으면 아

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가 없었고 후원이 없었으니 렌트비는커녕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반응하기 보다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심일조에 대한 말씀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교회의 심일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믿어 교회 헌금의 심일조를 떼어서 당시 총회와 지방회에 드리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매달 경험하였습니다.

3년9개월 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린 그 다음 달부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주님 명령인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울면서 순종으로 반응했고

핍박과 고난당하면서 목숨을 걸듯이 실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큰 성전이나 여러 건물들,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나 엄청난 게 오른 땅값과 같은 것이 잘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했던 믿음이 영광스럽고 복되게 남는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벌써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소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런 작은 반응의 선택으로 인생 후반전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1서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고

고난을 이겨낸 고려인 디아스포라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5)



김 중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

연해주의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로 강제 추방당했다. 1937년 8월21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고려인이 일본의 간첩활동을 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결의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강제추방 전 소련 사회 지식인 중에서 2500명 이상의 한인들을 숙청한다. 이는 소련 사회에서 한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굶주림과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연해주 초기 한인들은 한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민족학교를 세운다. 그래서 1920년대 연해주의 한인 초중등 교육기관은 344개에 이르렀고 학생수는 25,000명이 넘게 되었다. 그리고 사범대학교가 개교되었고, 7개의 우리말 신문, 8개의 우리말 잡지가 발간되었다. 1932년에는 고려

극단이 창단되었고,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다.

1930년대 연해주 한인들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문화를 즐기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들은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얻지 못한 채 꼬박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2만킬로미터 넘는 먼 곳에 버려진 것이다. 당시 스탈린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 20,170가구 총 95,256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16,272가구 총 76,525명, 모두 171,781명의 한인이 강제로 추방되었다.

한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1만 1천명 이상이 죽었다. 기차 한칸에 평균 4가족, 20여명이 실렸는데 불규칙하게 정착해서 기차 안에서 출산하는 이들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으로 유아 사망률은 높았다 한다. 달리는 기차에서 장례를 치를수 없어 시신을 기차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참으로 끔찍한 고난이다. 10월에 출발하여 한겨울에 도착한 한인들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거처를 구하지 못한 한인들은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어린 유아와 약한 이들을 두고 그 주변을 젊은 장정들이 스크랩을 싸 온기를 만들어 중앙아시아의 매서운 추위와 싸워 생존했다.

◆고난을 이겨낸 고려인 디아스포라

이런 역경에서도 고려인들은 구소련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잘 사는 소수민족으로 우뚝 일어선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죽고 수십

만이 국외로 떠나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야말로 버려진 허허벌판 동토의 땅은 황무지였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그 동토의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든다. 범시를 개발하고 수로를 만들어 마침내 1Ha 수확량 15톤 세계 기록의 기적을 일구어 낸다.

고려인들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다. 집단농장에 세운 초중고 통합 과정이었던 ‘선봉중학교’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학교에서 러시아어와 모국어인 한국어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구소련에서 고려인 200여명의 노동영웅이 나왔다. 이는 소수 민족 최다수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는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50명의 부호 가운데 7명이 고려인이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1991년 12월26일, 구소련의 붕괴로 고려인들은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다. 구소련에서 12개 국가로 나뉘게 되는데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11 나라가 민족주의를 내세워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한다. 이 로인해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재산과 일터를 잃고 유랑자 삶을 산다. 연해주로 돌아간 고려인 사정은 더 심각하다. 국적이 없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심한 생활고를 겪는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의미

고려인은 19세기말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선도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다. 그리고 근

면 성실을 토대로 소련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1937년의 정치탄압과 강제이주로 극한 어려움을 겪지만 다수의 고려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현지 국가에서 안정적인 터전을 확보했다. 이들은 부모세대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지금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민족이다. 이들에게 조국은 하나다.

1864년 조선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할 때, 그리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당할 때, 그들의 조국은 남북이 나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조국을 생각할 때 남과 북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남과 북한에 대한 균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려인 72%가 남북 통일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2014년 고려인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때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연해주, 평양, 개성, 서울, 부산에 이르는 15,000km ‘러시아-한반도 종주,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 행사를 가졌다. “유라시아 평화의 길, 한반도 통일길”을 지향하는 대륙횡단 및 한반도 종단 랠리 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북음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함께 해야 할 필수적 협력자이다. 하나님은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유라시아 이슬람문화권 국가에 먼저 보내셨다. 이는 한반도 북음통일 이후 중앙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한민족 대장정 세계선교의 길을 미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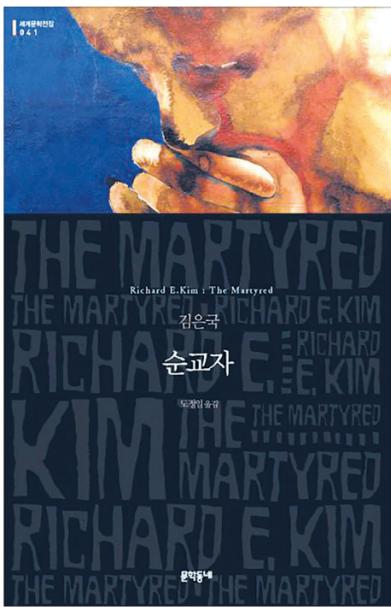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213.378.8530/213.674.7476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기독교 소설의 전범'으로 보긴 힘들지만

순교하지 못해 지탄받던 한 배교자의 '한결같은 신앙'



순교자
김은국
문학동네 | 326쪽

“이 작품의 분위기는 아주 엄숙하다. 그러나 이 책의 열정은 그 엄숙함의 거칠고 메마른 표면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다.”
-필립 로스-

1950년 10월, 6.25 전쟁이 한창일 때의 평양. 대학 강사였던 이 대위는 평양내 목사 14명이 공산군에 잡혀 12명이 사살되고 2명이 산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살된 12명의 목사는 순교자로, 살아남은 2명의 목사는 배교자로 지탄을 받습니다.

대강의 내용만 보자면 감동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 죽었을 것 같은 12명의 목사를 중심으로, 2명의 배교자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왜 배교했는지에 초점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이 대위도 여기에 주안점을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책은 길지 않습니다. 328쪽입니다. 배경도 6·25 전쟁을 두고 있어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읽자고 마음먹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과 분량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게 읽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답답하게 읽었습니다.

우선 메시지는 깊고 진중하나, 질질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순교자와 2명의 배교자. 답을 처음에 제시하고는 이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조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순교자가

아니고, 배교자가 배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답을 초반에 알게 되었으니 진짜 답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이 소설의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데, 방식이 지루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조금 알려주다 뒤로 빼고, 다시 조금 알려주다 뒤로 빼면서 분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답을 알려줄 때는 그다지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니다. 답을 알려주고 나서도 더 오래 갑니다.

또 하나는 정답을 밝히는 순간, 즉 왜 12명의 목사가 죽었고, 왜 2명의 목사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장면이 소설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절정의 순간임에도, 조금도 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들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나오지도 않고, 그들과 주인공 이 대위가 대면하는 장면 또한 그다지 비중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이유, 왜 2명의 목사를 살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황당하다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만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감상평을 써야 하니 다 읽고 나서 또 다시 읽었음에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재미 소설가로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가가 이 소설이 뛰어난 재능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주제는 특별하지 않고, 소설적인 재미도 없는 편입니다.

처음 읽고 나서 이 소설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감상평을 쓰기 위해 이 소설을 되짚어 보면서 알게 된 건, 이 소설의 핵심은 '12명의 동료 목사가 죽은 상황에서 2명의 목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살아남은 2명의 목사가 이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였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소설은 세상과 신에게 한 가지씩의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정말 진실일까?', 신에게는 뒤표지에서 쓰인 대로 '신은 과연 우리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으면 좋겠다'라는 걸, 진실로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앙받는 지도자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따르고, 그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니 음모라 하는 건, 객관적으로 증명된 진실보다 내가 믿는 진실을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진실. 결국 추앙받는 그보다 추앙하는 내가, 신뢰를 받는 대상보다 신뢰하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살아남은 2명의 목사 중 한 명인 신 목사에게 다그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이미 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신 목사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 그들이 진실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소?"(103쪽)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신의 존재 여부를 묻습니다. 신

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절망을 만들 리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서도 나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뜻이 있다"로 귀결됩니다. 허무하기까지 한 답을 접하자면 신에 대한 불신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일찍부터 무너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건, 그 허무하기도 한 답을 믿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입니다.

평양에 공습이 내려 곧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한다는 걸 알게 된 이 대위는 신 목사에게 이 군사정보를 알리면서, 평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떠났던 신 목사가 평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거기서 보았소. 그렇소. 당신이 환상이라 부른 그 영원한 희망 말이오.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하긴 이게 사실이지만)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271쪽)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지금의 환난이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건, 삶은 늘 고통받고 고난은 늘 쉬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건, 신 목사의 말대로 이 세상에선 희망과 약속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 한 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희망과 약속은 세상의 진실보다 강합니다. 내가 믿는 진실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믿는 진실이 무너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추앙하고 있고 신뢰하는 대상이 모래성처럼 허거운 허장성세였다 해도 의연할 수 있는 건, 하늘이 주는 희망과 약속은 단단한 진리의 성(城)이기 때문입니다.

배교자로 지탄을 받는 신 목사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다시 신뢰합니다. 진실을 저편에 두고 오해를 안고 살아도 삶으로 진리를 증명한다면, 진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것이 다만 여러 굴욕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해도, 진리를 증명함에 필요한 대가라는 걸 상기하자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일찍 알려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을 깨부순 후의 끝을 길게 다룬 건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소설의 장소는 몇 곳 되지 않고 주제도 뚜렷해서 '연극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연극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적인 재미가 뛰어나지 않고, '기독교 소설의 전범'이라 하기에도 망설여지지만, 신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한 성찰을 주기에 충분한 소설인 건 분명합니다.

■ 이성구(서평가)

■ 금주의 말씀묵상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6

2 CORINTHIANS 4:6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A)에 속한 교회로, 이 지역의 유수 대학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음중심적인 목회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교회 소개 및 배경 설명: 아래 링크 참조
<https://tinyurl.com/5e7mz3pn>

자격

-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PCA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로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가족 소개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원본은 청빙 수락 시에 요청합니다)
- 설교 2회분 (link):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은 1회분 추가
- 추천인 3인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목회자 2인 포함)

제출 방법

- email to: s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바람

제출 마감

-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는 접수되는대로 시작함)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Pittsbur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반기독교 논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2)

<수리남>으로 보는,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반기독교 성향

마약상 전요환, 넷플릭스 반종교 대변 한국 페르소나 악질 범죄자와 사이버 목회자, 매우 조잡한 방식 결부 사이버 종교 조롱 이어 기독교 자체 거부감 심는 효과 기독교 '맹목적이고 일방적 체계' 라는 비판의식 담겨

◆종교비판과 기독교: 기독교에 집중된 미디어의 종교비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표적 고등종교인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불교는 각각 나름의 도덕 혹은 윤리 체계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신 앞에서 인류의 전적 평등을 원칙으로 삼아 타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종교로는 기독교와 불교를 지목할 수 있다. 이슬람과 힌두교는 이 두 종교를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 교리적으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해당 종교 신자들끼리는 나름 치밀한 도덕 및 윤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반면,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도덕 및 윤리적 책임에는 비교적 둔감하고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무슬림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동이나 힌두교인이 대다수인 인도에서 유독 외국인들에 대한 불친절이나 사기 사례가 빈발하는 데는 이런 종교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다.

반면 기독교와 불교는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교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방인과 객'에 대한 환대를 중시하는 유대교의 신앙정서를 계승한 데다, 선교의 책무를 중시하기에 교회 바깥 이들에 대해 차별없이 선대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

불교 역시 만상(萬象)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근거로 들어 만물에 대한 대자대비의 마음을 강조하므로, 불교도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 양측을 비교해 본다면, 기독교 편이 불교보다 외인(外人)에 대한 도덕적 혹은 윤리적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편이다. 불교는 자신 안의 불성(佛性)을 찾으려는 가르침에 따라 내향적 성향을 갖는 데 반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기준이 되므로 근본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특유의 도덕과 윤리 체계를 가장 외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그런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힘인 동시에, 자칫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되기도 한다.

어떤 기독교인이 자신이 소개하는 신앙의 양심을 스스로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기독교회의 외향적인 도덕 및 윤리 체계는 많은 이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빠르게 감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반면 어떤 기독교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말과 다르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경우 주변인들은 그 표리부동함을 쉽게 감지하고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직관적으로 실망하게 된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유독 기독교 신앙인들을 비판, 풍자, 조롱하는 일이 많은 데는 이런 뒷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수리남>의 기독교 비판 및 희화화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속사정이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외부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알려진 만큼, 그 안의 부조리나 위선적인 모습 역시 외부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신앙은 반종교 성향을 보이는 모더니즘, 그리고 무종교 성향을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양측으로부터 종교적 부조리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종교비판과 뉴미디어: 반기독교 성향을 기본 기조로 천명한 뉴미디어

이처럼 종교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각종 부조리나 비윤리 혹은 비합리 사례들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 집중됨으로써, 기독교회는 부당한 난관을 겪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종교들의 부조리와 비윤리를 대표하는 믿음의 체계로 지목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고, 사이버로 변질되기 쉬우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데 특화된 것처럼 대중에게 소개된다.

<수리남>의 두 주연 가운데 하나인 마약상 전요환(황정민 분)은 뉴미디어 기업 넷플릭스의 반종교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한국적 페르소나라 할 수 있다.

전요환이라는 캐릭터 속에는 악질 범죄자와 사이버 목회자의 형상이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로써 전요환과 그의 종교집단 추종자들이 벌이는 촌극은 시청자들에게 일차적으로는 기독교 계열 사이버 종교들에 대한 조롱의 정서를, 다음으로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 전요환이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 폭력배의 수뇌라는 점은 <수리남>이 명백히 반기독교적 의도를 가진 각본가 혹은 감독에 의해 연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피해자가 많고, 살인과 같은 다른 강력범죄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와 유통이다.



한국인으로서 남미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했던 범죄자 조봉행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

근래 미국 대표적인 범죄 관련 대작으로 <브레이킹 배드>나 <나르코스> 시리즈가 주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마약범죄가 모든 유형의 범죄들 가운데 가장 저열하고 악질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 역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탓에,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수리남>은 굳이 마약상과 사이버 목회자를 종합한 캐릭터를 창조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미지 추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수리남>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악의적인 희화화 사례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넷플릭스를 위시한 뉴미디어가 기독교 신앙에 우호적인 작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여타 OTT 서비스 업체들의 이런 의지에 편승한 국내 각본가들이나 감독들 역시 향후 기독교 신앙에 우호적인 작품을 내놓을 리 없다.

2017년 <구해줘>를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과 <지옥>처럼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희화화하는 드라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 와중에, <수리남>은 향후 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국내 기독교인 시청자들을 의식한 듯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기보다, 사이버 교역자나 신앙인들을 악역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리남> 속 강인기(하정우 분)의 아내 박혜진(추자현 분)이 나름 순진하면서도 선량한 인물로 그려진 것도 기독교에 대한 간접적 희화화에 대한 기독교인 시청자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순화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작중 박혜진에 대한 묘사도 순전히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남편을 역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모습에는 기독교 신앙이 타인의 생각과 가치

관을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믿음의 체계라는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결국 국내에서 제작된 넷플릭스나 다른 뉴미디어 작품들도 일정 시점부터는 정상적인 교회와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희화화와 조롱을 시도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넷플릭스의 <메시아>를 통해 그 포문을 열었다.

그나마 국내 감독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들은 사이버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의 부도덕 및 비윤리 실태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여, 기독교의 윤리적 갱신에 대한 일말의 미련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작된 뉴미디어 기업들의 반기독교 콘텐츠는 아예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삶에 근본적으로 무가치하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원천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에서 제작되는 반기독교 작품들도 향후에는 미국에서 제작된 뉴미디어 반기독교 콘텐츠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부당한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독교인 시청자들의 경각심과 전문화된 기독교 변증 콘텐츠 제작이다. 특히 반기독교 영화, 드라마의 재미와 작품성을 뛰어넘는 기독교 변증 콘텐츠 제작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일반 미디어 기업들이 <심계>나 <벤티>처럼 기독교인 이외의 대중에게도 호평을 받을만한 성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주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무종교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반종교적 성향의 뉴미디어가 미디어 업계의 대세로 등극한 현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에 힘을 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미디어 업계 그 어느 편에서도 교회와 신앙인들의 편을 들어줄 곳은 없을 것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KIDOK SHOP

10월 31일까지

기독샵 그랜드 오픈

www.kidokshop.com

전품목
20%

장바구니에 담은 즉시 할인가 적용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우측 QR코드 스캔



scan me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Deals of the Week | 이번주 핫딜



퀸세스 6종 프리미엄 칼 세트

쉽게 접하기 힘든 중식도부터 야채손질 감자칼까지, 알찬 구성!

\$36.99 >> \$19.99

>> **\$15.99**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굽은 등! 모든 질병의 원인, 하루 30분 착용으로 등을 펴세요.

\$45.00 >> \$38.00

>> **\$30.41**



패치큐 나인슬림 셀룰라이트 패치

쉽고 빠른 붙이는 다이어트 솔루션 먹는 것보다 321% 흡수율 UP!

\$75.00 >> \$60.00

>> **\$48.00**



후프 포맨 레드 에디션 2중세트

남성 피부 자신감을 지켜 줄 가성비 갑의 프리미엄 세트

\$59.00 >> \$48.00

>> **\$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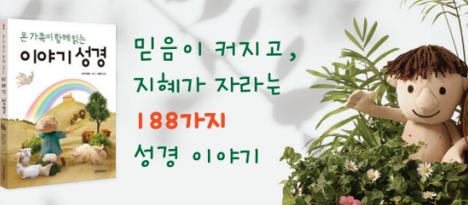


가성비 갑!

가장 핫한 단체선물
해피바스
목욕용품 선물세트

MD's PICK!

알록달록 설거지 만렙 스코이 스크럽



믿음이 커지고, 지혜가 자라는 188가지 성경 이야기

Hall of Fame | 명예의 전당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2병)

전세계 1초에 1개씩 판매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34.00

>> **\$27.20**



피에르다르장 다목적 세제 300g

프랑스에서 온 1등 국민 클리너 냄비, 가스렌지, 냉장고 얼룩, 욕실 물때, 곰팡이, 운동화까지 한번에 싹!

\$15.00

>> **\$12.00**



야마모토한방제약 보리새싹잎차 (2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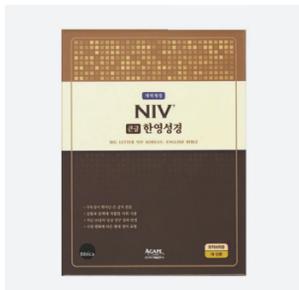
일본 9년 연속 1위, 국민 건강 지킴이 혈당관리, 콜레스테롤 완화, 체지방 감소, 면역력 증가, 해독작용까지

\$50.00

>> **\$40.00**

Christianity Products | 기독서적 & 기독용품

(*기독품목 할인 제외)



개역개정 NIV 큰글한영성경

대단본 / 무지퍼 / 모카브라운 지난 30년의 성경 연구 성과 반영

>> **\$78.75**



가슴 뛰는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부르심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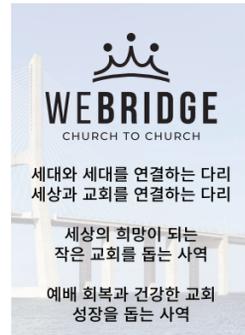


내가 곧 길ियो (2583)

인테리어 말씀 액자 480 x 330 mm

>> **\$39.40**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세상의 희망이 되는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
예배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선한 기부
기독샵은 사이트 수익금의 10%를 ING 재단을 통해 WEBRIDGE에 기부합니다.
교회를 위한 선한 쇼핑